

더러운 하수시설을 깨끗하게... 시민에 맑은 물 제공

남 원시가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어 남원시의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하수시설 새롭게 바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남원시는 맑은 물 제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764억(국비 520억, 시비 244억)의 하수도 사업 예산을 확보, 하수시설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강우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남원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2018년 말부터 추진해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남원시는 2012년부터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30여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26km에 대해 우, 오수 분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 총 사업비 183억원을 들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 보절신과 주천 고촌 송동 송기 산동 태평지구 등 20개 마을의 관거 31.5km, 배수설비 885개소를 정비했고, 현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수관로 57km, 배수설비 2,800여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남원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8개 하천(요천, 갈치천, 고죽천, 백암천, 원천천, 주촌천, 광치천, 옥룡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 31km를 개·보수하는 등 88%의 공정율을 기록할 정도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하수도 정비를 수질 변화 상승 기대

남원시가 이렇게 하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하수 처리과정을 공정별로 분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합류식지역의 분류식화와 기존 불량하수관로의 개·보수 시행에 따른 불명수 유입 저감 효과와 유입 수질 개선 이유가 크다.

노후된 차집관로가 개량되면 하천으로 유입되던 오수가 전량 수집,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돼 적정 처리 후 방류되기 때문에 하천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크게 절감된다. 이러한 효과를 입증해, 현재 남원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18년 124mg/l 대비 현재 148mg/l로 24mg/l 증가했고, 하수처리장 유입량의 경우도 2018년



강우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 따라 하수관로 정비 차집관로 정비 올해 준공 '눈앞'

하수 처리과정 공정별 분리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요인

향후 시가지 하수관로 전체 분류식화

평균 4만8,000㎡/일 대비 현재 3만2,000㎡/일로 1만6,000㎡/일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명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 전에는 합류식지역이 우수토실 정비 미비 및 유지관리 소홀로 강우 시 오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됐으며, 하수관로 미 보급 지역은 평상시에도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됐었다. 특히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노후된 관 접합 부분 파손 및 이탈 등으로 하천수가 차집관로로 유입·유출돼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켜 주민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는 강우 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기존

합류식지역을 최대한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하수관로 미 보급지역에 관로를 신설하고 있다. 특히 차집관로의 경우 항시 유량이 많아 설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CCTV 촬영으로 관 내부 상태를 재조사·재관측하고 있으며, 기존 불량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을 시행해 남원시 외곽지역부터 중심까지 가로지

르고 있는 8개 하천(요천, 광치천, 백암천, 원천천, 주촌천, 옥룡천 등)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기존에 가옥주가 배수설비를 주기적으로 파내고 청소해야 하는 점, 우수와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이송되고 관리돼왔던 점을 개선키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받이를 설치하고 있어 생활하수만 오수관로에 직접 유입 가능하다.

대상지역도 면밀히 재조사·재검토해 정비대상을 당초 2,800가구에서 3,200가구로 확대 적용하고, 시내구간 맨홀캡프장 8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분류식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하수도 정비를 주거환경개선... 도시 미관 기대

앞으로 남원시는 2021년 말까지 강우 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완료로 통해 남원 시가지 하수관로 전체를 분류식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남원시에는 남원차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지역이 증대되고, 하수도정비로 악취, 모기 등이 상당부분 저감되어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천수질 개선으로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우 시에도 안정적인 하수처리 효율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으로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왕길성 남원시 환경사업소 소장은 "시는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전 부서가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협업을 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밝히며, 특히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 소장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민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